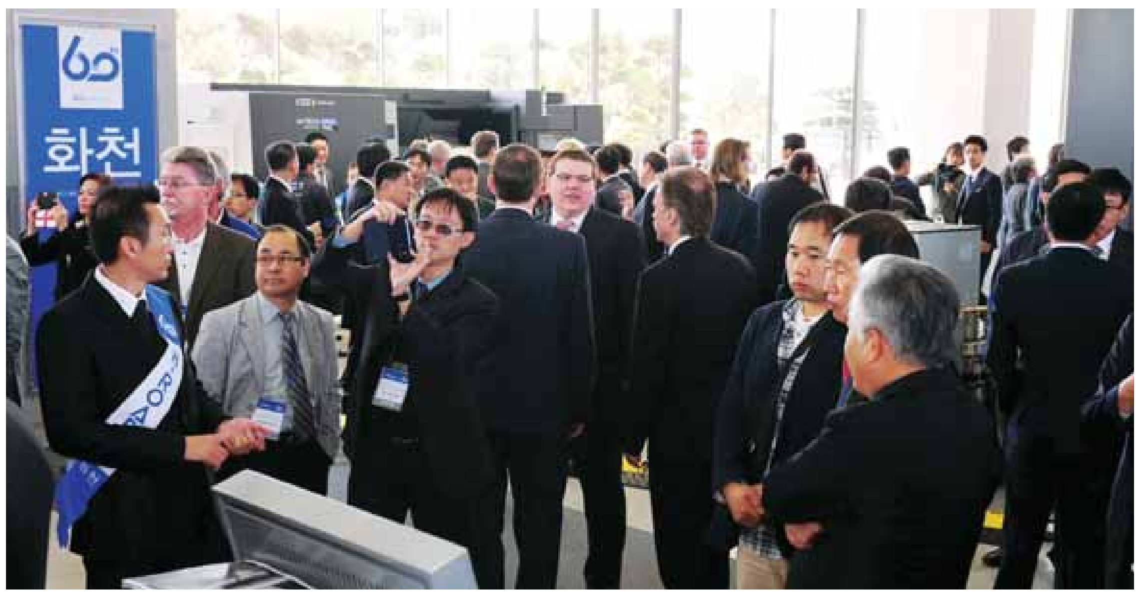
‘메이드 인 광주’ 공작기계 60년 한눈에

창사 60주년 화천그룹 3일까지 ‘화천 오픈하우스’

한국 최초 벨트식 선반.

‘화천 SMART-Ua’.

스마트 머신 등 21종 기계 전시·체험


화천그룹은 31일 광주 하남산단 내 화천기공 본사에서 국내외 고객 2000여명을 초청해 자사 공작기계 제품을 소개하는 화천 오픈하우스 ‘H-Road 2012’를 개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올해로 창사 60주년을 맞은 세계적 공작기계 전문기업 화천그룹(회장 권영렬)이 화천 공작기계 기술 60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화천그룹은 오는 3일까지 광주 하남산단 내 화천기공 본사에서 국내외 고객과 딜러 2000여 명을 초청해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화천 오픈하우스(H-Road) 2012’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화천 오픈하우스는 화천그룹이 2년마다 여는 전시회로,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머신 ‘화천 SMART-Ua’을 비롯해 올해 출시한 신제품 10종 등 총 21종의 공작기계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스마트머신은 금형 등 제품생산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자동화해 초보자도 버튼 4번의 작동만으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한 IT기술 융합형 신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천그룹은 이번 오픈하우스를 위해 신축 건물과 기존 공장동을 활용해 2441㎡ 규모의 행사장을 만들었다. 오픈하우스는 전시관과 홍보관으로 구성해 화천그룹의 60년 기술이 집약된 최신 공작기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산시설과 기술력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공장투어도 진행했다.

권영렬 화천그룹 회장은 “공작기계 전문그룹으로서 위상과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특히 화천 60년의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1952년 합명회사 화천기공사로 출발한 화천그룹은 모기업인 화천기공을 비롯해 화천기계, 서암기계공업, TPS-코리아, (재)서암문화재단 등이 있다. 지난해 25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도 수출 1억 달러 달성 등에 힘입어 작년대비 10~15%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광주에 본사를 둔 화천기공은 지난 1959년 제조한 수동식 선반은 전후 폐허가 된 국내 산업계에 일대 전환기를 마련했던 공작기계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한국 최초 ‘수동식 선반 설계 및 제조 기술’은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공학한림원의 ‘대한민국 100대 기술’로 선정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산단 휴켐스 2000억원 규모 日미쓰이화학에 벤젠 공급 계약

여수국가산단 내 휴켐스주식회사(대표이사 최규성)가 일본 미쓰이화학에 연간 6만t 규모의 모노 니트로 벤젠(MNB)을 3년간 공급한다.

휴켐스는 31일 미쓰이화학 MDI공장에서 소요되는 MNB 전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제품 최초 공급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번 계약으로 휴켐스는 연간 약 700억원, 계약기간 3년동안 총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휴켐스가 해외 기업과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휴켐스는 미쓰이화학의 TDI와 MDI 원료 공급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MNB는 폴리우레탄 중간재인 MDI의 원재료로, 건축용 단열재·자동차 내장재·가전제품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중국·인도·동남아 등의 인구 증가와 소비재 시장 확대에 따라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연산 15만t 규모의 MNB공장을 증설한 휴켐스는 지난 6월 금호미쓰이화학과 15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일본 미쓰이화학과 공급계약을 맺음으로써 총 32만t에 이르는 MNB 생산 전량의 판매처를 확보하게 됐다.

최규성 대표는 “이번 계약은 휴켐스가 ‘첨단 화학소재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전략의 첫 결실”이라며 “앞으로 국내외 고객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출 확대·해외 생산거점 확보 등 신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aT, IHG과 손잡고 한식 세계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세계 최대 호텔그룹과 손잡고 한식 세계화에 나섰다.

aT는 지난 30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100여개국에 4500여 호텔 체인망을 가진 IHG(인터컨티넨탈호텔 그룹) 및 파르나스호텔(주)과 3자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했다.

전 세계 1위의 호텔그룹인 IHG는 인터컨티넨탈·크라운프라자·홀리데이인 등 7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또 파르나스호텔(주)은 국내에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호텔기업으로 해외호텔에 한식 조리사 파견, 농가와 우수 식재료 직거래, 한식 인력양성 등 추진하고 있다.

aT는 한식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해외 유명호텔에 한국인 셰프를 파견, 현지 셰프를 대상으로 한식 조리 실습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현지 호텔에 한식메뉴 채택, 전통주 등 한식 식재료의 신규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자영업자 부채 가구당 1억 육박

총규모 430조원 달해…임금 근로자의 2배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악화한 탓에 부실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의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2012년 3월말 기준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430조원 내외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무려 16.9%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8.9%)을 크게 웃돈다.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나빠져 사업체 운영자금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 은퇴로 생계형 창업활동이 늘어나 창업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다.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는 95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당 부채(460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자영업자가 219.1%이지만 임금근로자는 125.8%에 그쳤다.

특히 과다채무가구(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40% 초과) 비중이 임금근로자는 8.5%에 그쳤으나 자영업자는 14.8%에 달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는 차입의존도가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집중돼 부채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2011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가운데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불경기에 신용등급 하락 기업 속출

올들어 작년 2배 급증…구조조정 압력 거세

2008년 찾아온 금융위기가 5년째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급속한 신용등급 하락 압력에 노출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그간 ‘등급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비난받을 정도로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쉽사리 내리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등급 상향기업 수는 줄이고 하향기업 수는 늘리고 있다.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탓이다.

31일 우리투자증권과 신용평가사들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의 등급상하향 배율은 2010년 3.5배, 2011년 2.9배에서 올해 들어 1.4배로 낮아졌다.

등급상하향배율은 신용등급이 상승한 기업 수를 하락하거나 부도가 난 기업 수로 나눈 수치로 배율 하락은 등급이 강등된 기업 수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몇 년째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일부 기업들이 기초 체력(펀더멘털)도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내려간 기업 중에는 금융위기 이후 4~5년 연속 실적 부진을 겪은 건설·해운·조선사가 다수 포함됐다. 두산건설은 A-에서 BBB+ 등급으로, STX팬오션과 한진해운홀딩스는 각각 A에서 A-로 강등됐다.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A-에서 D로 추락했다.

경기 침체가 깊어질수록 기업들의 대출 수요 또한 늘고 있지만 은행권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기업 대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구조조정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연합뉴스

삼성 하반기 공채 1600명이 지방대

삼성그룹이 올해 하반기 3급 신입사원 공채에서 지방대 출신 1600명을 채용했다. 이는 전체 채용인원 4500명의 36% 규모로, 과거 25~27% 수준보다 10%포인트 가량 확대된 것이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 출신도 전체의 5%인 220명을 선발했다.

삼성은 지난 6월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가는 열린채용’ 제도를 도입, 지방대와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 출신들의 채용을 늘리고 있다. 이번 하반기 공채는 이 제도 도입 후 처음 실시됐다.

삼성은 특히 지방대 출신이 적극적으로 공채에 도전할 수 있게 지난 8월부터 광주·대전·부산 등 3개 도시에서 26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또 전국 주요 지방대학을 방문해 채용설명회도 가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9월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 전달보다 7.8% 증가

9월 중 광주·전남 지역의 광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9월 광주·전남 지역 광공업 생산 동향’을 분석한 결과 9월 중 광주지역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1.1% 감소했지만 전달보다는 7.8% 증가했다.

전국의 경우 광공업생산이 전년 같은 달 대비 0.7%, 전달 보다 0.8% 각각 증가했다.

생산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61.2%), 기계장비(14.2%), 음료(22.6%) 등은 증가했지만 자동차(-12.8%)를 비롯한 담배(-64.4%), 금속가공(-11.8%) 등은 많이 감소했다.

전남지역의 9월 중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5.9%, 전달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12.06 (+12.48)
▲ 코스닥지수	508.31 (+6.00)
▼ 금리 (국고채 3년)	2.77% (-0.01)
▼ 원·달러 환율	1,090.70원 (-0.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